

지금은 천 년 혼인 잔치의 때다

본 문 마태복음 22장 1-14절

<말씀 시작>

- ◆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의 현실을 보고, 비유를 들어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 ◆ 유대 종교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온다는 약속>을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으로 성장하셨고,

<4000년 구약역사의 소망과 희망을 실현할 새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 시대의 새 복음을 전하시며,
- 사람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고,
-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 과거에 그~토록 기다렸던 새 역사였습니다.

◆ <과거에 기다렸던 새 역사, 새 시대>는
최~고의 희망을 이루는 때입니다.

◆ 예수님은 ‘이때’ 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이때>는 마치 ‘혼인 잔치의 때’ 와 같다.” 하셨습니다.

◆ <일생 중에서 최고로 기쁜 때>가 있다면 ‘사랑할 때’ ,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일 것입니다.

◆ <그 시대>, 곧 <과거에 그토록 기다렸던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과거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시대>

이 시대를 두고 ‘최고로 기쁜 혼인 잔치의 때’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은
〈이렇게 귀하고 기쁜 때〉를 두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입니다.

- ◎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쁜 때〉를 두고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은 ‘비유’ 로 말씀하셨습니다.

- ◆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고,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오찬을 준비했는데,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춰 댔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할 일’ 을 하러 갔습니다.

남아 있던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 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 ◆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고, 살인한 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와라.” 했습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의 말을 전해 주며
혼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 ◆ 혼인 잔치날이 되었고,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친구여.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 ◆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 현실의 입장과 처지가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예수님>은 ‘임금 입장’ 이었습니다.
- ◆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임금의 말을 전하는 종 입장’ 이었습니다.
- ◆ <첫 번째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유대 종교인, 곧 구약 주권권 안에 있는 자들’ 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이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 시대>로 가장 먼저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갈 길을 가거나,
예수님과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 ◆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 ◆ 이렇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결국 임금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갖추다> 함은 ‘행실을 갖추다.’ 하는 말입니다.

<새 시대>에 청함을 받고 ‘주 앞’에 오기는 했는데,
<행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의 없이 나온 사람들>은
그 <행실>에 따라서 결국 ‘어두운 사망’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름 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전환>

- ◆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이며 <핵심>입니다.
- ◆ 지금은 때가 되어, <신부시대 새로운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와 같은 시대>입니다.
 -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이며,
 -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며,
 - 신약역사 2000년 동안 그토록 희망으로 기다린 시대입니다.
 - 이 시대는 <이전보다 더 자원 높은 시대>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시대 주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삼위와 주 앞에 ‘신부 입장’ 이 되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 역사>입니다.

- ◆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를 보내시고
<1000년 사 혼인 잔치>를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어 이 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한 자들>은

‘주를 믿고 주가 오기를 희망으로 기다린 저 기성인들’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헛소문에 의해서 오해하고 이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가 있지요?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각종 핑계를 대며 안 왔습니다.

- ◆ 그래서 두 번째에는 <시대를 알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방인도 좋고 누구도 좋으니,
아무나 <혼인 잔치 역사>에 오도록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말해 주면서,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 ◆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
<성경에 기록된 천 년사 혼인 잔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든, 안 기다렸던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청해서 오게 했습니다.

또 <삼위와 함께 행하는 행사들>을 때마다 준비해서,
모두 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왜 이같이 잔치를 하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춰 왔는지
그 ‘이유’ 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부시대에 맞지 않는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위와 함께 행하는 그 행사에
맞지 않는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영적으로 볼 때, <옷>은 ‘행실의 결과체’ 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사명>에 따라서
‘그 혼과 영이 입는 옷’ 이 달라집니다.

◆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요?

<예술인들>은 ‘때와 상황에 맞는 옷’ 을 입고
방송을 하거나 무대에 섭니다.

방송을 하거나 무대에 서는데,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되죠!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지휘자가 음악회를 하면 지휘할 때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무용수가 무대에 서면 역시 무용할 때의 옷을 입어야죠!

아무거나 입으면, 성의도 없고 매너도 없습니다.

<수영선수>가 대회를 할 때는 ‘수영복’ 을 입고,
<축구선수>는 ‘축구복’ , <배구선수>는 ‘배구복’ ,
<야구선수>는 ‘야구복’ 을 갖춰 입습니다.

<우주에 가는 우주인>이라면 ‘우주복’ 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늘~ 깨끗이 입고 다닙니다.

또 <큰 사람을 모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드시 ‘그때에 맞는 옷’ 을 입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때에 따라 ‘옷’ 을 갖춰 입어야,
<자기 사명>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성경을 보면, <까마귀>는 ‘불길한 상황’ 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그 생긴 대로 ‘까만 옷’ 을 입고
<불길한 상황>을 찢어서 전해 줍니다.

<사탄>도 그러합니다.

<사탄>은 항~상 ‘검고 우중충한 옷’ 을 입고 다닙니다.

<그 행실>대로 ‘옷’ 을 입고 다닙니다.

만일 <사탄이 밝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다면,
십중팔구 ‘사탄의 속임수’ 입니다.

- ◆ <성령님>은 때에 따라 의상을 ‘수백 가지’ 로 바꿔 입으십니다.

그 옷을 보니,

모양도 색상도 찬란하고 황홀하고 우아하고 신비했습니다.

고귀하고 신령한 옷이었습니다.

의상처럼 그 <아름다움>도 <마음>도 <역사하심>도
찬란하고 황홀하고 우아하고 신비하고 고귀하십니다.

<행실과 사명>이 ‘옷’ 으로 나타나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

- ◆ 영의 세계서도 <자기 행실>에 따라서 ‘입는 옷’ 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행실>에 따라서 절대 속일 수 없이
<육의 옷>도 입고 <영의 옷>도 입습니다.

- ◆ 또한 <자기 행실과 사명>에 따라서

<삶의 배경의 옷>도 입고 <환경의 옷>도 입게 됩니다.

축구선수는 <삶의 배경과 환경의 옷>이 ‘축구장’ 이고,
예술인들은 <삶의 배경과 환경의 옷>이 ‘예술무대’ 이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 행실과 사명>에 따라서
<그 혼과 영의 거하는 배경과 환경의 옷>이 달라집니다.

◆ <옷>과 <행실>은 ‘일체’ 입니다.

<자기 혼과 영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자기 육신의 행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행실>에 따라서
<혼>도 <영>도 ‘그에 해당되는 옷’ 을 입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여러분은 ‘어떤 옷’ 을 입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묻기.)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청함을 받고 <혼인 잔치 역사>에 참여했어도,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청함을 받고 <예배>나 <섭리사 각종 행사>에 참여했어도
<기본>은 갖추고 삼위와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보낸 사명자가 이렇다 저렇다. - 하지만 말고,
자신도 <기본 매너>를 갖추고 나와야 됩니다.

<기본>은 ‘옷’입니다. 곧 ‘행실’입니다.

<행실>을 제대로 갖추고 <매너>를 갖추고 나서

- <혼인 잔치 역사>에 참여하고,
- <하나님과 주가 베푸시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 <하나님과 주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 <하와>는 타락한 직후부터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행위>가 부끄러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행위>로 인해

구원에서도 탈락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가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의 입장’과 다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의 행위>가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함의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수준으로 함부로 노아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함은 노아의 책망을 받고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행실>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과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 앞에

<함>이나 <하와>와 같은 입장이 아닌지 꼭~ 생각해 보고,

<자기 행실>이 어떠한지 깨닫고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 ◆ 주님은 <지금 이 귀한 때, 우리 모두의 상태>를 보시고
지난 2주에 걸쳐서 깊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할 것>이 ‘태풍’ 같이 밀려와도 실족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면,

즉시 ‘새로운 희망과 힘’ 이 온다.

지금은 <전환기>다. <더 차원 높은 단계로 가는 때>다.

이전 단계에서 벗어나야, 높은 차원으로 간다.

그러나, 벗어날 때가 가장 힘들다.

주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이 <전환기>를 잘 극복해라.

그리고 어서 <이 귀한 부활의 단계>로 넘어와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시고,
많은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 ◆ 이제 이 단계에서 벗어나, <자기 행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사명>과 <자기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1000년 사 혼인 잔치의 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행실>을 제대로 갖추고 <혼인 잔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행실의 옷>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는 옷>도 갖추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는
제발 갖추 입고 와야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검정 옷>은

부득이하게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입어야 할 때만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올 때>는 삼가야 됩니다.

- ◆ <옷>이 ‘날개’ 라는 말이 있지요?

임금이라도 ‘작업복’ 만 입고 다니면,

<작업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임금으로서 때에 따라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갖춰 입는다는 말>은 ‘때에 맞게 입는다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행실, 때에 맞는 옷>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팔자’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 ◆ 어느 때는 <옷>이 자기 인물의 70% 이상을 좌우하고,
어느 때는 <옷>이 자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자기 몸>이 아무리 멋있어도 <옷>을 대충 입으면,
그때의 분위기에 맞게 처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옷을 잘 입는 게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감각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잘 갖춰 입습니다.

- ◆ <행실>도 ‘깨끗한 행실’이 중요하듯이,
<옷>도 잘 입지 못한다면 꼭 깨끗하게 갖춰서 입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 <자기 행실 갖추기>입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매일 거기에 맞춰 살기>입니다.

그러면 <그 행실>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옷’ 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천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주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누구나!! ‘행실’ 에 따라 ‘옷’ 을 입게 됩니다.

<행실의 예복>을 갖추려면,
반드시 시대 말씀을 듣고 매일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때에 맞는 행실, 때에 맞는 옷>입니다.

- ◆ 저 기성인들은 시대에 맞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해서
<신부의 행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혼과 영도 <신부의 옷>을 입지 못하고,
<세마포 옷>이나 입고 삽니다.

- ◆ 섭리사에서도 그러합니다.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신부의 행실>을 하지 않으니,
아직도 ‘신부의 옷’ 을 못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찬란하고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으려면,
주께나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실족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서성이지 말고 즉시! 행하며
어서 전환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성령과 함께 <수요일>에 전해 주겠습니다.

◎ **지금은 천 년 혼인 잔치의 때다.** - 말씀 마쳤습니다.